

사회인지진로모형을 통한 Holland 예술형 직업선택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유 나 현 박 용 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모형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582명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 진로장벽, 예술형 전공선택 등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들 간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이 다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는 경로가 차이남을 확인하였다. 반면 흥미와 효능감의 위치를 변동하여 알아본 대안 모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합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의 효과는 달랐으며 남자의 경우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국내와 여러 전공, 직업에 적용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와 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 정체감,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 예술형 진로선택, 진로장벽, 사회인지 진로이론

* 본 연구는 BK21 지원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2007-8-0028)’에 의해 수행됨.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khlee2445@yonsei.ac.kr, Tel : 02) 2123-2445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통적 직업과 전통적 직업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구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덜 장려하는 가족 내, 사회 내 분위기가 여성의 이공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점차 비전통적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Betz & Fizerald, 1987; Betz, Heesacker & Shuttlesworth, 1990).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인 성차로 진로 선택을 이해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이 직업 선택 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 같은 개인적 변인으로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 특성인 성역할 정체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진로 선택 과정을 알아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남녀에 따른 직업구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 관념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적 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써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성격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휘숙, 1999). 전통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성성은 도구적, 주장적, 독립적, 적극적, 경쟁적 특성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의미하고 여성성은 감성적, 관계지향적, 협동적, 양육적인 특성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의미한다(김혜숙, 1992). 기존 연구들은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여대생은 남성 다수의 직업인 비전통적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여성 다수의 직업인 전통적 직업에 흥미를 보인다(Gianakos & Subich, 1998). 대체로 남성성은 여성들의 비전통적 영역에서 진로선택과 관계가 있으며(Hackett, 1985), 남성성 유형의 여성들은 여성성 유형의 여성들보다 직업적 흥미와 일치한 진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Wolfe & Betz, 198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성역할 정체감은 직업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임희경과 이기학(2006)은 개인이 가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 흥미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여성성의 경우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에서 남성성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이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이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Gianakos & Subich, 1998; Lent, Brown, & Hackett, 1994) 현실형, 진취형은 남성성의 흥미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Lent 등, 1994, 임희경, 이기학, 2006).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의 결과는 Holland 직업선택 유형에 영향을 주는 남성성 및 여성성의 상대적인 관련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로선택과정에 있어서 Holland 직업유형 별로 성역할정체감이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만 복잡한 진로선택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와 함께 진로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흥미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etz, Borgen, & Harmon, 1996; Lent, Lopez, & Bieschke, 1991; Luzzo, Hasper, Albert, Bibby, & Martinelli, 1999). 이 둘의 관계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을 통해 보다 명확히 밝혀지는 추세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학업 및 진로 관련 행동 연구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회 인지적 기제와 과정을 통합하고, 개인이 학업 및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신의 흥미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의 학업적 또는 직업적 성공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Lent 등(1994)이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이 가정하는 핵심적인 전제는 사회인지적인 기제인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형성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발달은 학습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습 경험은 성, 기질, 인종과 같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즉 이 이론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목표와 같은 인지적인 개인 변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영향을 강조한다. 즉 이 이론은 개인, 환경 그리고 행동이 상호관련 되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환경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접근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환경의 측면을 교육의 질, 지지받은 경제적 자원과 같은 객관적 환경 요인과 특정한 환경 변인에 대해 지각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력 역시 진로 결정 과정과의 상대적 접근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범주는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는 직업 역할 모델이나 학업 또는 그 밖에 과외 활동을 통해 이전에 경험한 지지 또는 좌절과 같은 배경 맥락 요인이다. 두 번째 범주는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적 환경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선택에 이르는 복잡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Brown & Lent, 1996). 첫째, 직업적, 학업적 흥미는 주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로부터 발달한다. 둘째, 직업적 흥미가 있더라도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게 될 경우 흥미가 직업 선택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강화된다. 관련된 연구로 Lent, Brown과 Larkin(1986)은 공학/과학계열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계열의 직업을 고려하는데 직업과 학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진로 선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수학과 과학 등의 한정된 영역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다. 이에 최근의 연구는 한정된 영역에 대한 결과로써 진로선택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대입시켜 알아보기도 하였다(임희경, 이기학, 2006). 그러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대입시키는 것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주장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한정된 영역을 통해 밝혀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 계열, 직업에 대한 이론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형 진로선택 과정을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적용시켜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직업적 흥미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Bandura, 1977, 1986). 그리고 이러한 직업적 흥미는 개인의 진로 선택과 수행을 결정하도록 돕는다(Lent 등, 1994).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효능감과 흥미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흥미와 수행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Lent, Brown, & Hackett, 1994). 그러나 교차분석을 통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흥미의 선행 요소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Nauta, Kahn, Angell & Catarelli, 2002). 그리하여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흥미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경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Tracey, 2002).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상담 장면에서 흥미 있는 것을 찾고자 갈구하는 내담자들을 만나더라도 단순히 잘하는 것이 흥미를 일으킨다는 가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게 된다. 이에 자기효능감과 직업적 흥미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진로 흥미는 진로 선택과 수행을 예측하는 등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Lent 등,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의 또 다른 한계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맥락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Lent, Brown, Nota, & Soresi, 2003). 사회인

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 환경 그리고 행동 변인들 간에 서로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한다(Lent 등, 1994). 이러한 주장은 흥미, 자기효능감, 기대 등의 내적인 요소만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자칫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선택 시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해 보인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른 맥락적 또는 환경적 요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발달은 객관적인 환경적 요소와 지각된 환경적 요소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정 환경적 영향이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적 변인은 진로 관련 선택을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적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국내에서 그리고 예술형 진로에 대해 적용해 보는 타당한 방법이 되리라 보여진다. Lent 등(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과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적 또는 직업적 흥미를 발달시키는가를 설명하는 흥미 모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학업적, 직업적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선택모형이며 마지막 모형은 학업과 직업 영역에서 개인이 과제를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를 설명하는 수행 모형이다. 본 연구는 Lent(1994) 등이 제시한 세 가지 과정 모형 중 진로 선택모형을 기초로 하여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선택모형에서 진로선택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개인은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러

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흥미를 형성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사회적 지지나 진로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선택모형의 적합성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선택모형의 가정들이 적합한 것인지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확인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모형을 기초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이라는 개인 변인이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 진로장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예술형 진로 선택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진로선택모형을 검증하고 그 경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Lent(1994)등이 제안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모형이 제안한 경로와 성역할 정체감,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 진로선택 간의 관계 모형의 경로는 동일할 것인가?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적인 경로를 검증함과 동시에 예술형 흥미와 예술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흥미와 자기효능감 중 어느 변인이 시간적으로 선행할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

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56(44%)명, 여학생 321(55.2%)명, 미응답자 5(9%)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45세까지였으며 18세에서 27세까지가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89세였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273명(46.9%), 2학년이 160(27.5%), 3학년이 78명(13.4%), 4학년이 65명(11.2%)로 1, 2학년이 3, 4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심리학과의 연구자 윤리 규정인 IRB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m의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진경(1990)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1, 여성성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남성성의 경우 .88, 여성성의 경우 .86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각의 성별의 특성을 나타내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점수는 높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은 남성성, 여성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

는 내용으로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검사의 오염을 막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반응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정진경, 1990).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점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예술형 자기효능감과 흥미

예술형 자기효능감과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에 의뢰해 제작한 직업선호도검사(2001)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Holland의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 탐색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그리고 관습적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5문항과 흥미 7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흥미는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감, 흥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형 자기효능감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77, 예술형 흥미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79로 나타났다.

진로 장애

진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 진로미결정 검사(KCII)를 사용하였다. 한국 진로미결정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장애의 5 가지 하위 요인은 직업 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등이다. 한국 대학생 진로결정 장애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6에서 .89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

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보고되었다(이상희, 2005). 본 연구 자료에서 이용한 외적진로장애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문항의 내적합치도가 떨어지지만 각각의 문항이 외적 장애에 대한 독립된 요인은 측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술형 전공 선택

연구참가자들은 앞으로 희망하는 전공을 설문지에 기입하였다. 이 결과를 Holland 직업코드(안창규, 안현의 2003)에 따라 연구자가 더미 변수(0은 비예술형 전공, 1은 예술형 전공)로 변환하였다.

분석 방법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모델을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Holland 예술유형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투입 요인인 성역할정체감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흥미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지, 예술형 흥미가 진로선택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외적진로장애가 다른 진로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검증된 모형에 남녀 간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진로선택모델에서 흥미에 영향을 주는 결과기대는 예술형 자기효능감과 예술형 흥미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모델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모형 검증을 하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후 AMOS 4.0을 사용한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술형 자기효능감과 흥미, 외적진로장벽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성의 경우 예술형 흥미와 유의미한 상관($r = .20$)을 보인 반면 남성성은 예술형 흥미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예술형 자기효능감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다. 외적진로장벽과는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예술형 자기효능감과 예술형 흥미는 .48의 상관을 보여 흥미와 자기효능감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성역할 정체감과 예술형 진로선택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 검증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이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를 통해 예술형 진로선택에 이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적진로장벽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모형 검증을 한 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다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고 TLI와 CFI의 경우 .95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chi^2_{(df = 6)} = 16.993$; CFI = .958; TLI = .854; RMSEA = .056).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된 것은 두 경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N=582)

	1	2	3	4	5	6
1. 남성성						
2. 여성성	.159**					
3. 예술형자기효능감	.177**	.199**				
4. 예술형흥미	.064	.196**	.482**			
5. 외적진로장벽	-.130**	-.121**	-.004	.065		
6. 예술형진로선택	-.027	.083*	.214**	.243**	.101*	
M	92.93	97.31	9.40	16.51	7.93	.21
SD	15.31	14.12	2.78	3.42	3.02	.4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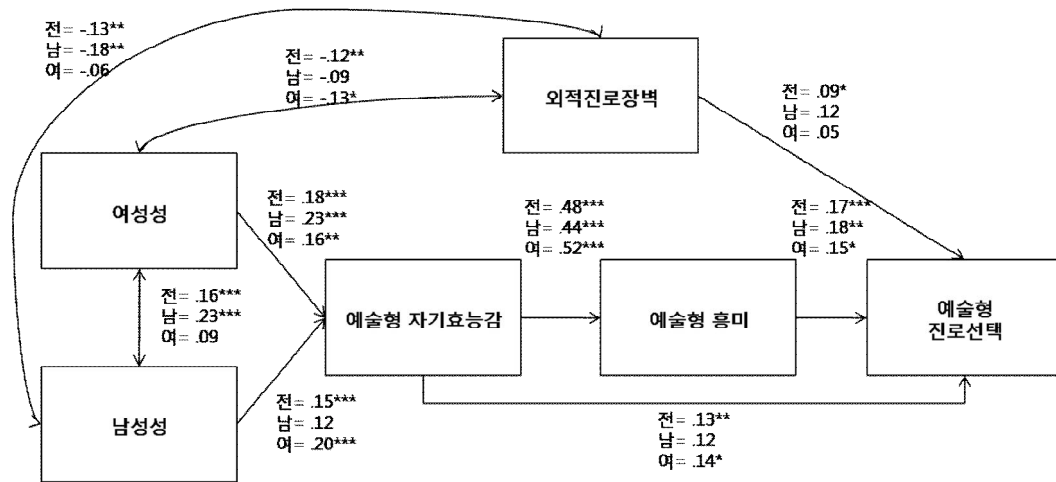


그림 1. 성역할 정체감과 예술형 진로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전=샘플전체, 남=남자, 여=여자

로 모두 유의미했으므로 지지되지 않았다. 즉 그 밖에 외적진로장벽이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본 결과는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그림 1에 제시된 모형과 같이 외적진로장벽은 예술형 진로선택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선택 과정 모형의 경로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과정 모형의 경로와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남자의 경우, 예측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좋았으며 전체 집단과 다른 경로를 보였다($\chi^2_{df=6} = 8.728, p < .05; CFI = .974; TLI = .910; RMSEA = .042$). 남성성은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예술형 자기효능감은 예술형 흥미를 매개하지 않고는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외적진로장벽은 예술형 진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측된 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좋았으나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성과 외적진로장벽, 남성성과 외적진로장벽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남성성이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진로선택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끼쳤다($\chi^2_{df=6} = 10.203, p < .05; CFI = .970; TLI = .897; RMSEA = .047$). 먼저 여성성과 남성성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외적진로장벽은 예술형 진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안 모형 검증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예술형 흥미가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선행하도록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여 검증해 보았다.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_{df=6} = 30.233; CFI = .908; TLI = .678; RMS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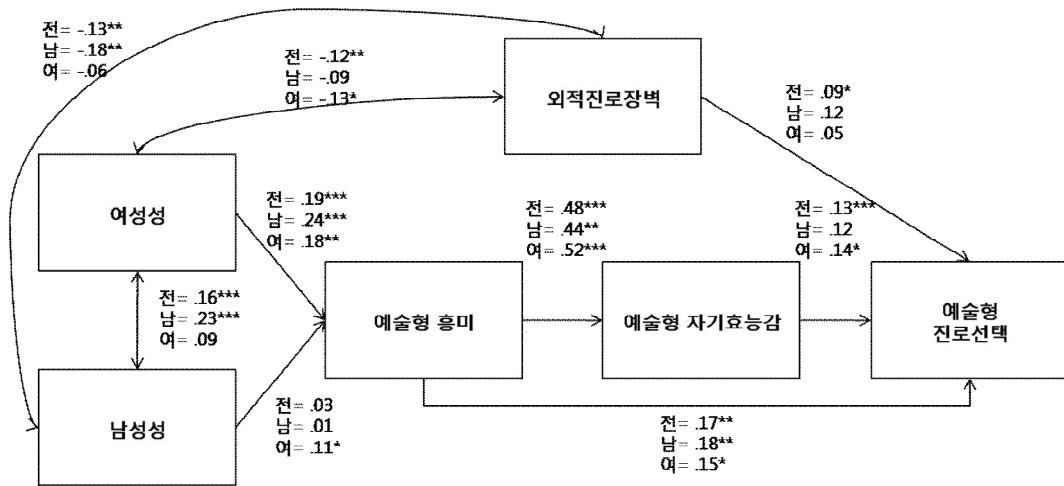


그림 2. 대안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전=샘플전체, 남=남자, 여=여자

.083). 그러나 남성성은 예술형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여성성은 예술형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자의 경우, 예측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했을 때보다 좋아졌으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에 미치지 못하였다($\chi^2_{df=6} = 14.803$; CFI = .917; TLI = .709; RMSEA = .076). 남성성은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형 흥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외적진로장벽과 예술형 자기효능감 역시 예술형 진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자의 경우, 예측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만 하였다($\chi^2_{df=6} = 18.159$; CFI = .915; TLI = .701; RMSEA = .080). 또한 여성은 외적진로장벽은 예술형 진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인지진로모형과 동일하게 남성과는 달리 여성성과 외적진로장벽, 남성성과 외적진로장벽 간의 유의한 상호관계를 나타내

었고, 여성성과 남성성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남성성이 예술형 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대안 모형은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FI와 TLI가 .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고, RMSEA 값이 .10 이상이면 모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과 .08 이하면 적합도를 양호하게 보는 입장에 의하면 대안 모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예술형 자기효능감, 예술형 흥미, 예술형 진로선택 그리고 외적진로장벽의 관계에 대해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그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로 도출되어 국내에서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인지진로이론이 다문화 연구를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는(Lent, Brown, Nota & Soresi, 2003)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결과로 보인다. 개인적 특성인 성역할 정체감은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예술형 자기효능감은 예술형 진로선택에 직접 관련되기도 했으며 예술형 흥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맥락적 변인으로 연구에 포함된 외적진로장벽은 예술형 자기효능감이나 예술형 흥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형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바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남자의 경우, 여성성만이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자는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흥미를 매개로 할 때만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이어졌고 예술형 자기효능감에서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예술형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남자에게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과 흥미가 모두 예술형일 때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여자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진로선택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성별을 간과한 채 성역할 정체감의 역할을 알아보거나, 성역할 정체감을 간과한 채 성별에 따른 차이만을 강조하는 결과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나타난 성차(Hackett & Betz, 1981; 양은주, 한종철, 1999)는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할 때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적진로장벽의 영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예술형 진로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등 외적 장애가 영향을 미치리라는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과로 외적진로장벽이 예술형 진로선택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결론 내리기는 선불러 보인다. 그 이유는 예술형 진로선택이 현재의 선택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예술형 진로를 선택할지 여부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다수가 대학교 1, 2학년에 속한다는 점도 이 같은 한계를 뒷받침한다. 손은령(2002)은 유사한 진로 발달 단계에 있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지각하는 결정의 시급성이나 심각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유형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맥락적 변인이 시기와 진로발달 과정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게 한다. 그러나 예술형 진로선택의 특성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Holland의 각 유형별로 진로선택 과정을 살펴보고 유형에 따른 차이인지 시기에 따른 차이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 검증을 통해 과학과 수학 등의 전공을 포함하는 현실형이 아닌 예술형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 개인요소인 성역할 정체감은 예술형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예술형 흥미와 예술형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맥락적 변인의 효과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 추후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으나 개인요소가 맥락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입장은 검증된 모형에서 나타난 성역할 정체감과 외적진로장벽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혔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흥미와 수행을 증가시킨다고 밝힌 연구가 많다는 주장과(Lent, Brown, & Hackett, 1994) 자기효능감과 흥미 사이에 정적 상관은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흥미의 선행 요소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가(Nauta, Kahn, Angell & Catarelli, 2002) 존재한다. 이에 자기효능감과 흥미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흥미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경로를 대안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안모형은 채택이 불가능한 정도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처럼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보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가 보다 나은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자기효능감이 흥미에 선행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경로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대안 모형을 기

각하기보다 대안 모형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성이 전체, 남자, 여자 집단 모두에서 예술형 흥미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Holland의 예술형이 여성성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Gianakos & Subich, 1998; Lent 등, 1994; 임희경, 이기학,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예술형 흥미는 예술형 자기효능감을 통해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기도 하고 예술형 흥미가 직접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남자의 경우 예술형 흥미가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였으나 예술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때는 오히려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외적진로장벽 역시 남자의 예술형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예술형 자기효능감이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대안 모형은 예술형 흥미와 예술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안 모형의 CFI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지만 TLI와 RMSEA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은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홍세희, 2000)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예술형 흥미가 예술형 자기효능감에 선행하게 될 경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형을 보다 간명하게 수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진로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로와 관련된 흥미, 자기효능감, 장애 등을 다루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이는 진로를 주제로 하지 않

는 개인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로상담에서도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이 진로 선택의 문제 자체만을 다루는데 그친다면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성별에 따라 진로선택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예술형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자에게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을 예측하는 충분한 요소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흥미가 동반되어야 예술형 진로선택에 이를 수 있었다. 반면 여자의 경우 자기효능감만으로도 예술형 진로선택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추후 더 자세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진로상담에서 성별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형을 검토하는 데 그쳤으나 추후 흥미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다 뚜렷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검증해 보는 작업이 필요 하겠다. 또한 진로장벽을 외적진로장벽으로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추후 진로장벽을 다양하게 유목화하여 진로장벽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 1, 2학년생이 많았던 관계로 진로장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 1, 2학년 집단과 졸업을 앞둔 고학년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장벽의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 하겠다. 본 연구 결과 과학/수학 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성역할 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이나 진로장벽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Holland의 6가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성과 남성성이 전체집단과 남자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성역할 정체감과 외적진로장벽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추후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의 문제이다.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진로미결정검사도구가 진로 결정 시 경험하고 지각하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의 내용이 매우 상응하는 변인으로서 진로장벽을 측정함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진로결정 시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 직접적인 측정의 한계는 갖고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진로장벽을 측정하여 진로선택과 정도형의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제 예술형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래 예술형 직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실제적인 진로 선택 및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예술형에서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진로선택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98). 직업선호

- 도 검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숙 (1992). 성별 고정 관념, 성차이와 양성성, 현대 사회의 여성과 남성. 아주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소 편. (pp 44-92)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안창규, 안현의 (2003). Holland 간편진로코드 분류표. 서울: 한국가이던스
- 양은주, 한종철 (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79-96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효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경, 이기학 (200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효능감이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53-67.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D).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 191-215.
- Betz, N. E., Borgen, F. H., & Harmon, L. W. (1996). *Skills Confidence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Betz, N. E. & Fiz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 Betz, N. E., Heesacker, R. S., & Shuttlesworth,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and occupational plans in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Burnett, J. W., Anderson, W. P., &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23-326.
- Gianakos, I., & Subich, L. (1998). Student sex and sex role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59-268.
- Hackett, G. (1985). The role of mathematics self-efficacy in the choice of math-related majors of college women and men: A path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7-56.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u, L-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Sociocognitive mechanism of personal agency in career development: Pantheoretical prospects. In M. L., Savics &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77-10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 (1986).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career and academic behavior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Lent, R. W., Lopez, F. G., & Bieschke, K. J. (1991). mathematics self-efficacy: Sources and relation to science-bases career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24-430.
- Luzzo, D. A., Hasper, P., Albert, K. A., Bibby, M. A., & Martinelli, E. A. (1999). Effects of self-efficacy-enhancing interventions on the math/science self-efficacy and career interests, goals, and actions of career undecided college students. In Issacson, L. E, & D. Brown (Eds.),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Allyn and Bacon.
- Nauta, M. M., Kahn, J. H., Angell, J. W., & Catarelli, E. A. (2002). Identifying the antecedent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Interests and Self-Efficacy: Is it One, the Other, or Bo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290-301.
- Tak, J., & Lee, K.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racey, T. J. G. (2002). Development of interests and competency beliefs: A 1-year longitudinal study of fifth- to eighth-grade students using the ICA-R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8-163.
-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 1 차원고집수 : 2007. 8. 19.
심사통과집수 : 2007. 9. 17.
최종원고집수 : 2007. 9. 22.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he Choice of Artistic Major: Based on SCCT Model

Nahyun Yoo Yong-Doo Park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several hypotheses emanating from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packet containing measurement of gender role identity, artistic self-efficacy, artistic interests, external career barriers, and the choice of artistic majors. Findings indicated partial support for the hypotheses that self-efficacy predict interest, and that interest mediate the relations of self-efficacy to the choice of artistic major. However, the expected model was varied somewhat across sex. In addition, contrary to SCCT model, artistic interest also predict artistic self-efficacy though the model fit was lower than SCCT mod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identity, Artistic self-efficacy, Artistic interest, Choice of Artistic major, Career barrier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